

‘최고 연 19.4% 효과’ 청년미래적금 금리 공시…22일 출시

정부기여금 최대12%·비과세 월 50만원 넣으면 2255만원

19~34세 청년 우대·일반형 내달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

광주은행 등 14개 기관 취급 첫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다들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금융회사별 금리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됐다.

은행 금리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실질 이자 효과는 일반형의 경우 최고 연 13.2~14.4%, 우대형은 최고 18.2~19.4% 수준에 이른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3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p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취급기관 총 14곳 중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우정사업본부 등 최대 3%p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의 우대금리는 최대 2%p다.

기관별 우대금리는 급여 이체, 카드이용 등 금융거래 실적 및 이용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취급기관 공통 우대금리로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에 0.5%p,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 0.2%p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금리 8%, 우대형 기준으로 3년간 월 50만원(원금 18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39만원이 더해져 만기 수령액은 2255만원에 이른다.

14개 기관이 동시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금융위원회와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연계 테스트 등 출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전산 구축 일정에 따라 12월 중 출시 예정이며, 금리는 향후 별도로 공

시된다. 가입 신청 기간은 출시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운영된다. 신청 접수 후 가입 및 소득 심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22일(월) 1·6번, 23일(화) 2·7번, 24일(수) 3·8번, 25일(목) 4·9번, 26일(금) 5·0번 순이다. 이어 차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세부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센터(1397 바로 3번)로 문의 가능하다.

금융위는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취합해 세부 가입·소득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통한 갈아타기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비교

2026년 6월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 한정 갈아타기 가능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2023년	2026년
월 최대 70만 원	월 최대 50만 원
5년 만기	3년 만기
소득별 매칭, 최대 3.3만 원	정부기여금 6% 또는 12% 지원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기여금 지급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기여금 지급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연 6.0%	최고금리 연 7.0-8.0%
최대 5,000만 원	예상 수령액 최대 2,200만 원 내외
목돈 마련형, 높은 납입한도와 수령액	특징 중장기 실속형, 짧은 납입기간, 비교적 높은 금리

연말뉴스 자료: 금융위원회

광주 생산·소비·건설 지표 ‘훈풍’

광주지역 생산과 소비, 건설 지표가 모두 증가했다. 반면 전남은 생산과 소비가 크게 줄면서 부진을 보였다.

31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팀이 발표한 '2026년 4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자동차(15.8%), 담배(9.5%), 전자·통신(11.9%) 등은 증가했지만 기계장비(-16.4%), 고무·플라스틱(-9.4%), 전기장비(-3.6%) 등에서 감소했다.

등 민간부문에서 158.3%가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751.8% 대폭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철도·궤도, 토지조성 등 토목부문(846.6%)은 크게 증가하고 주택, 공장·창고 등 건축부문(155.8%)도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3.8% 줄었다. 기계장비(16.5%), 기계·장비수리(3.2%), 식료품(0.5%) 등이 늘었지만, 화학제품(-21.5%), 1차 금속(-8.4%), 석유정제(-17.9%) 등이 감

건설수주액 3062억원 192% 급증 전남 생산·소비는 두자릿수 감소

출하도 1년 전보다 2.9% 늘었다. 자동차(11.3%), 담배(38.0%), 전자·통신(7.3%) 등이 증가했지만, 기계장비(-27.3%), 고무·플라스틱(-13.7%), 전기장비(-2.8%) 등은 감소했다.

재료는 같은 기간 4.7%가 증가했다. 주요 업종별로 1차 금속(14.1%), 석유정제(13.5%), 식료품(40.4%) 등에서 증가하고 화학제품(-1.7%), 전기장비(-22.4%), 금속기공(-36.0%) 등이 줄었다.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64.4로 전년 동월 대비 13.7% 감소했다. 건설수주액은 제1차 금속, 기타 비제조업 등 민간부문 267.2%와 공기업,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1.0%가 늘어 9983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24.3%가 증가했다.

소한 영향이 컸다. 출하도 전년 동월 대비 12.0% 줄었는데, 화학제품(-18.4%), 석유정제(-16.2%), 1차 금속(-7.8%)이 크게 줄었다.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64.4로 전년 동월 대비 13.7% 감소했다. 건설수주액은 제1차 금속, 기타 비제조업 등 민간부문 267.2%와 공기업,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1.0%가 늘어 9983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24.3%가 증가했다.

발주자별로는 부동산, 기계장치에

임재용 기자 djawody0316@

광주은행, 영업점 ‘무더위쉼터’ 개방

9월까지 오전 9시~오후 4시 운영…부채도 제공

광주은행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31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쉼터는 다음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광주·전남과 수도권 지역 전체 영업점에서 운영한다. 수도권금융센터와 프라이م PB센터는 제외된다.

무더위쉼터는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더위를 식히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다음달 18일부터 영업점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부채도 제공할 예정이다.

무더위쉼터는 광주은행이 2018년 은행권 최초로 도입해 매년 운영하고 있다.



선종윤 영업기획부장은 “무더위쉼터는 폭염에 지친 시민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민 가까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90.86p(3.55%) 오른 8476.15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종전·젠슨 황 방한 호재에 코스피 또 최고치

8470선 안착…유가증권 거래대금 78.3조 삼전 HBM4E 샘플 출하 소식에 5.84% ↑

코스피가 29일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질주를 이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90.86p(3.55%) 오른 8476.15에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 27일 각각 기록한 종가 기준 최고치(8228.70)는 물론, 장 중 최고치(8457.09)도 경신한 것이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9.02p(2.43%) 오른 8384.31로 출발해 내내 상승세를 유지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2조 3660억원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도 각각 1조4014억원, 1조687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1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다만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 시장에서는 1조724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5.1원 오른 1507.9원을 나타냈다. 이날 코스피 상승에는 종전 기대감에 삼성전자의 HBM4E 샘플 출하 및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지수는 그간 국내 증시를 무겁게 짓누르던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리스크가 양측의 종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관측에 완화하면서 상승 출발했다.

개장 직전에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산업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7세대 제품 HBM4E의 샘플 출하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기에 젠슨 황 CEO가 방한해 피지컬 AI와 클라우드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뉴스가 더해지면서 반도체 등 IT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수도 우상향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별로 보면 삼성전자(5.84%)와 SK하이닉스(1.92%), 삼성전기(15.04%), 현대차(6.79%) 등이 올랐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HBM4E 샘플 출하 소식에 우선주도 6.08% 상승하며 합산 시가총액 2000조원을 돌파했고, 삼성전기는 기관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가 200만원을 훌쩍 넘어서며 코스피 시총 4위에 올라섰다.

젠슨 황 CEO 방한 소식이 LG전자(29.93%)와 현대차 등 로봇 관련 종목, LG CNS(29.91%)와 삼성SDS(20.32%) 등 시스템 통합(SI) 업체, 네이버(14.15%) 등의 주가가 급등했다.

상위주 상승에 유가증권시장 시총은 69333조원으로 7000조원에 육박했다. 주가가 오른 종목의 많은 수가 반도체 등 대형 기술주로, 시총 상위주에 대한 싹쓸이 현상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9.56p(2.68%) 내린 1074.80으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7.79p(0.71%) 오른 1112.15로 출발했으나 이내 하락 전환했다.

연말뉴스

국내 복귀계좌 1조5000억 추산 '100% 양도세 감면' 시한 종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 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1조4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4시 기준 국내 증권사의 총 RIA 계좌수는 27만2770개, 잔고는 2조50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으로 유입된 국내 자산 잔고는 총 1조4834억원으로 조사됐다.

RIA 계좌 잔고 중에서도 국내 자산을 매입한 잔고(1조4834억원)가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이 된다.

해외주식을 매도만 한다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도결재일 이후 1년간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내에서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펀드·예탁금으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약 1조5000억원이 해외로 나갔다가 '유턴'했고, 총 잔고 중 나머지 1조원은 RIA 계좌에는 있지만 여전히 해외주식을 매입한 상태다.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5월 말까지 100%,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100% 공제를 받기 위한 시한은 28일 오전 8~9시였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미국 현지 기준으로는 27일 애프터마켓이 끝나는 시간이다.

해외주식 '매도'는 결제 완료 기준으로, 주문결제일과 결제일 간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100%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으려면 29일까지 결제가 이뤄져야 한다. 30일과 31일은 주말로 장이 열리지 않는다.

지난 19일 기준 총 잔고는 1조9443억원, 유입된 국내 자산 잔고는 총 1조2129억원이었다. 국내 자산으로 들어온 금액이 9일 만에 2700억원가량(1조2129억원→1조4834억원) 증가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서학 개미들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미국 시장에서 순매도를 이어갔다.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순매도 금액은 11억2900억 달러(1조9350억원)로, 100% 양도세 공제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하루 순매도 금액은 1억6300만 달러(2445억원)였다.

양도세 100%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잔고(1조4834억원)는 27일 기준 서학개미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 보관액 2010억 달러(301조원)의 0.49% 수준이다.

연말뉴스